존 오스왈트 박사, 호세아, 세션 10, 호세아 11장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비디오를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필사를 허가한 Francis Asbury Society(켄터키주 월모어)와 Oswalt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 책의 가능한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1장부터 3장은 호세아가 그의 창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4~14번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4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아는 것은 섹스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친밀감,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있을 때 휴식이 옵니다. 그리고 6장 4절을 통해 11장 11절을 통해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 단어는 헤세드(hesed)이다. 지식은 최고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11장을 살펴보며 두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1:12에서 책 끝까지 나는 신실함이나 진실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의를 넣으면, 이 네 단어,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변함없는 사랑, 신실함, 의로움은 내가 말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 성품,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성품의 미덕을 아주 잘 요약할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4화 역시 희망적인 메모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가 저에게 말했듯이 책의 멋지고 깔끔한 개요를 얻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많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여호와와의 결혼 상대자는 아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이 1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부모와 자녀라는 다른 비유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나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아요, 그들의 기원은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곳이었습니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인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놓아서 나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를 놓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네 첫째 아들을 죽이겠다.

파라오,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장자를 보내주고 장자의 생명은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 앞에 놓인 선택은 매우 암울한 것 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말했듯이, 관계의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관계를 맺으시고 삼위일체로부터 자라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관계 속에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하나님이 그 관계적 사랑을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결과이다. 사랑하는 아이라는 비유는 또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돌보심을 암시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부자 관계, 배려, 훈련, 공기, 규율, 부드러움, 그렇습니다. 이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혈연관계였고,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내 주제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내 신부예요, 그렇죠. 너는 내 목숨을 바친 내 아이야.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고, 그 현실이 바로 성경적 신앙의 현실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렇다면 2절에는 본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그들이 그들을 불렀다가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거의 확실히 그것은 오류이고 아마도 내가 그들을 더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여기에 영어 표준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많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욱 떠나갔습니다. 자, 왜요? 내가 그들을 더 많이 부를수록, 그들이 더 많이 부를수록 그들은 더 많이 떠나갔습니다. 왜? 우리의 본질적으로 최악된 본성은 그렇습니다.

2세 및 청소년. 우리집엔 개가 있었는데, 개가 도망가길 원하면 불러줬어요.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 부름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괜찮은. 좋아요.

관계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그것은 헌신을 포함합니다. 이는 함께 걷고 있는 사람에게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르심의 바로 그 요소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뜻을 당신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한테 전화하면 여기로 오세요. 글썄요, 저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안 돼? 당신이 나를 거기로 오라고 불렀으니까요.

부르심의 본질에는 복종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 행복을 요구하며, 우리가 기꺼이 드리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가 말했듯이, 여러 면에서 최악된 성향의 뿌리에는 '나는 원한다'라고 말하는 완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꾸러미에 제사를 드리며 우상들에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돌을 만드는가? 제어. 주위에 금색 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계속 희생하도록, 그들을 아버지로 존재하게 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꾸러미에 제물을 태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시고,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이 모든 문제. 그리고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환상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곳에서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땅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오래 지속될 명성을 원합니다.

내가 그걸 당신에게 주도록 해주시겠어요? 모든 천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인류의 미래 전체가 그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나는 그가 테이커를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는지 종종 궁금했습니다.

감사해요. 내 말은, 이런 종류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비교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을 보여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가마니와 우상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첫째로,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하기에 나쁜 곳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맵소사.

내 친구 뱀은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내 친구 뱀은 당신이 그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은 나에게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 생깁니다. 돈. 나에게 돈이 충분하다면 누구도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옳습니다. 춘화. 우리는 인류를 파괴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엔 포르노가 먼저 할 것 같아. 그것에 중독된 여덟 살 소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에게 걷는 법을 가르친 사람은 나였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팔로 안았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쳐 준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동사가 좀 이상해요. 나는 그들이 내가 가르쳤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훈련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치유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내 생각엔 아이가 걷고 있을 때, 걷는 법을 배우는 때인 것 같아요. 그는 넘어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안고 안아주고 낮게 해주세요.

응, 이런. 연민입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훈련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바알들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현실에 있을 때 그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도 나고, 그들을 치료한 사람도 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알들이 그랬습니다.

응.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알들이 그들에게 행한 일로부터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응, 응.

하지만 내 생각에 그가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거나 뭔가에 부딪혀 상처를 입는 등의 일을 부모가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응, 키스해. 그래서 다시 한 번 부모의 사랑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나쁜만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어머니는 네가 넘어져 다칠 때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위해 있다. 회복된 곳에는 치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망가졌고 이제 치유 과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이 훈련에 또 다른 더 깊은 자비로운 측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걷는 법을 가르쳐 주고, 넘어졌을 때 낮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11절의 마지막 부분, 즉 1절을 간과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와 그 모친이 애굽으로 여행한 일과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돌아온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는 이집트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취에서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성취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더 좁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상응할 수도 있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원래 구절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성취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것의 예를 말하고 싶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이고 거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 예측, 환상, 무언가를 집어내는 곳.

이사야는 광야에서 즉시 울부짖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사이에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같은 종류의 환상이라고 말하는 신약성경입니다. 당신은 또한 비유나 다른 단어의 예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신약의 어떤 것과 평행을 이루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의 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 유사점을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이 겪게 될 논쟁은 그것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 그는 창세기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자주 그렇듯이 둘 사이의 중간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도가 있지만 일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세부 사항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션 과 일러스트레이션과 환상은 정말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이 꽃들처럼 배열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것은 단순히 구약의 언어를 그림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입니다. 문학적 내용도 비슷한 종류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부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집트에서 부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상응하는 둘의 의미를 문학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사님, 이집트 유배와 앗시리아 유배 사이에 유사점이 있습니까? 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행선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승리한 후 그들은 선한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을 총독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 테러리스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 테러리스트들은 '아,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집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당신은 당신이 속했던 노예 제도로 곧바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취감을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양한 가능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20~30대의 엑소더스(Exodus)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 아이들이며 떼를 지어 떠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알았어, 응, 응.

그리고 거기에 '부모'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사역을 하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정에 놓여진 기초를 더하고 그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기초가 없으면 우리가 주택 건설업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2층 집을 짓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드는 함께 못을 박을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재단, 재단. 그리고 물론 20, 30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기초를 마련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순환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회는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헌신과 행복을 요구합니다.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2,700년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순환이 여전히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절에서 그는 비유를 다시 바꿉니다. 여기서는 마치 농부와 그의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친절의 끈과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 단어 아하입니다. 애정.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그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농장에서 자라면서 나는 이것을 조금 이해합니다. 젖소 1,600마리가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10개 있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육점 트럭에 블라썸을 데려갔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좋은 소였습니다. 그녀는 전성기를 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유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절의 끈과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턱의 멍에를 완화시키는 자와 같이 되었느니라. 나는 그들에게 몸을 굽혀 먹이를 주었다.

그래서 그림은 동물을 사랑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산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때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멍에를 무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내가 그들을 인도적인 끈으로 끌어당겼다고 말했습니다.

예. 인간적인 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영어 단어 humane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인도적인 코드. 초크 칼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여기서 기능하는 방법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아니 아니. 그래요, 그래요, 나는 그들을 굴복시키도록 두들겨 패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장 심각한 의미에서 그들의 의지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택했고, 선택했고,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쳐서 그들의 성문 빗장을 멸하고 그들의 꾀를 인하여 그들을 삼키리라 내 백성은 나에게서 등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높은 분을 불러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전혀 일으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안 돼? 그들이 외쳐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뭐야? 그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야훼 숭배를 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혼합과 일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우상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를 당신의 우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칼이 그들의 성읍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러 갈 거예요. 아니요, 내가 세상이 기능하도록 설계한 방식에 따라 살지 않으면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그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채 나에게 소리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같은 생각이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내 길을 원하는 것처럼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뇨, 아뇨, 저는 당신의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길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에게 내 길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흠, 그렇죠. 내 길을 축복해 주시고, 내 선택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넘겨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평야의 다섯 성읍 중
 하나이거나,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평지의 다섯 성읍 중 두 개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반동합니다.

나의 동정심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나는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분, 내가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자, 잠깐만요. 그는
 분명히 진노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추방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재 뭐래? 자신의
 의도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응, 응.

당신이 추방된다면 그것은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십시오. 에브라임도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

나는 당신이 거기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당신이 거기에 간다면
 그것은 그 당시 추방이 확실히 그런 의미였던 것처럼 당신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예, 예, 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결코 멸망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트럭 운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까? 화내면 남자답지 않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는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합니다. 그것은 정당합니다. 벽돌 벽에서 곧장, 절벽에서 바로.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 기회를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반응은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날려 버렸고 나는 당신과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어떻게 너를 놓아줄 수 있겠느냐? 천년 동안 언약을 어겼는데 어떻게 당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내야 한다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선택한 결과로부터 당신을 막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두 구절,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통렬하게 엿볼 수 있는 구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인간적으로는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고 기뻐요.

당신은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웃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해냈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상한 마음으로 그들을 놓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쌍하고 회개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네, 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이며,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언덕과 바위가 나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보내라는 초대를 받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또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파멸시키려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파멸시킨 죄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라 아주 심오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이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함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인데, 그 앞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분과 함께 살고 그 분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체 제사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용광로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건초 더미. 그리고 용광로가 우리를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입니다. 성막, 성전, 예수님. 우리가 생존하고 심지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아, 나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다. 그리고 악마들이 그를 알아본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는 그에게 닥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 구절,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자에게 나는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는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다.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의 자손이 서쪽에서부터 떨어져 올 것이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처럼, 앗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떨어져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음-흠. 내가 전화할게.

나는 너를 지구상에서 닦아내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는 유배를 통해 당신을 연단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 신앙 전체가 포로 생활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경건하게도 돼지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히브리 신앙은 유배되기 오래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추방은 그것을 정제한 것입니다. 유배의 불이 그것을 정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여기에 잘못된 장 분할에 대한 다소 고전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응. 12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나를 에워싸고 이스라엘 족속은 거짓으로 에워쌌나이다 그러나 유다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분께 신실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하루 종일 동풍을 좇습니다.

아, 아이-이-이, 아이-이-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웨슬리안 아르메니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원한 불안을 설교합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죄를 짓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을 보낼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요점입니다. 좋아요, 질문, 의견, 관찰은요? 당신을 완전히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분은 우리 세상과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다르십니까? 아 예, 아 예, 아 예.

나는 신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응, 응, 응. 예.

정말 좋은 게 뭐죠? 오, 오. 좋아요. 그것이 없으면 이것이 존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초더미가 떨어져 나가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다마스쿠스 강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유사의 불이군요.

그러므로 용광로는 일차적으로 삶의 경험이 아닙니다. 용광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날 종교의 대부분은 거래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이것을 해주고 나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지고 썩어가는 조각들을 가져다가 하나로 합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를 당한 사람에게 유일한 답이 용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증오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죠? 이제는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선원의 노래--고대 선원, 그래.

그는 자신이 죽인 죽은 알바트로스를 목에 걸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날 세상에는 죽은 알바트로스를 목에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은 우리 목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광로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예. 괜찮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다음주에 보자. 안녕.